

2021년 11월 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방송·인터넷·통신은 11월 4일 11시부터 보도)

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김기환(044-201-1771), 사무관 강민수(1776) / 제공일: 11월 4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,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

-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5일부터 총 2조 2,263억 원 지급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□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,263억 원 지급

○ 소농직불금 5,410억 원, 면적직불금 1조 6,853억 원 지급

□ 총 112만 3천 농가와 농업인에게 지급(면적은 108.3만ha)

○ 소농직불금은 45만 1천 호(14.6만ha)에, 면적직불금은 67만 2천 명(93.7만ha)에게 지급함

○ 올해는 기존 직불정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통합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직불금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함

□ 11월 5일 각 시·도에 자금을 교부하면, 해당 시·군·구에서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.

○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·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
< 지급 개요 >

- (지급규모)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·농업인 (108.3만ha)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,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.
-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,410억원(45.1만 호), 농업인(법인 포함)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,853억 원 (67.2만 명)을 지급한다.

<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>

	지급액 (억 원)	지급면적 (천ha)	지급인원 (천 호, 천 명)	비 고
소농직불금	5,410	146	451	농가 기준
면적직불금	16,853	937	672	농업인 기준
계	22,263	1,083	1,123	

- (자격검증)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*을 구축하고, 신청·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.

*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,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·농업인·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

- 또한, 신청·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,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,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.
- (준수사항)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.
-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·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% 감액 적용하였다.

〈 주요 특징 〉

- (지급규모)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(112.3만 건)는 소농 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*하였다.

* ('20년) 112.1만 건(소농 43.1만, 면적 69만) → ('21년) 112.3(소농 45.1, 면적 67.2)

- 다만, 지급 면적(108.3만ha)은 작년(112.8만ha)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, 이는 사전 검증 강화, 농지의 자연 감소, 신규 농업인 진입*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.

* 신규 농업인의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자가 되므로 내년에 신청 가능

- (경작규모별 비교) 0.1ha 이상 0.5ha 이하 경작 농가·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,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(2조 2,263억원) 중 24.2%를 차지한다.

-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.4%(5,091억 원)보다 1.8%p 증가한 수준이다.

< 경작 규모별 지급총액 및 비중 >

(억 원, %)

	0.1ha 이상 ~0.5ha 이하	0.5ha 초과 ~2h 이하	2ha 초과~ 6ha이하	6ha 초과	계
2020년	5,091 (22.4)	8,043 (35.3)	6,161 (27.1)	3,458 (15.2)	22,753 (100.0)
2021년	5,390 (24.2)	7,709 (34.6)	5,876 (26.4)	3,288 (14.8)	22,263 (100.0)

- (논·밭 비교)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,012억 원(총액의 71.9%)이, 밭에는 6,251억 원(총액의 28.1%)이 지급된다.

-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(28.1%)은 지난해(28.3%)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.

< 향후 계획 >

-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,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.
-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.
-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“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곳곳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,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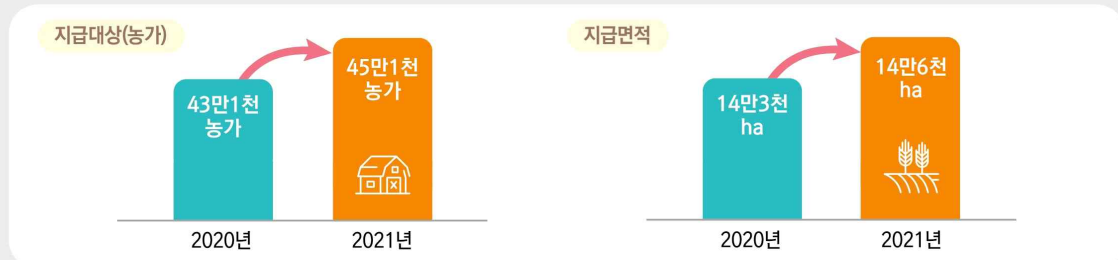
☑ 엄격한 자격검증을 통과한 112만3천 농가·농업인에게 총 2조2,263억원 지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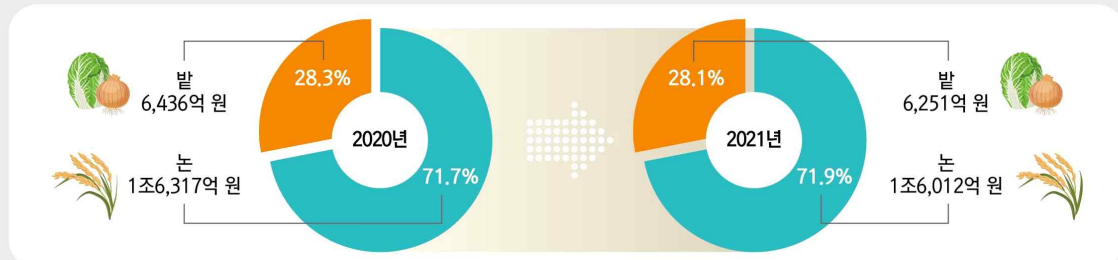
☑ 전년도에 비해 면적당 지급액, 지급대상 증가



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, 지급면적 증가



☑ 논·밭 직불금 비중은 전년과 유사



지자체 행정절차를 거쳐 **11월 5일부터**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